

■ **업계동향** ■

## LG産電(株), 韓電으로부터 배전자동화 인공고장 발생장치 개발업체로 선정

LG産電(株)(代表: 孫基洛)이 한전에서 전북 고창에 건설중인 배전자동화 시험장에 설치할 인공고장 발생장치 개발업체로 선정되었다.

배전자동화는 배전선로에 설치되는 각종 차단기, 개폐기, 계전기 등을 보호하는 기기를 원격에서 제어, 감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현재 이러한 기기들은 자동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인공고장 발생장치는 이러한 배전자동화 시스템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과전압, 과전류 등을 발생시켜 고장원인의 신속한 제거, 현상의 측정 및 기록이 가능한 단락 시험 설비이며, 배전선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장 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장비로서 그동안 선진국의 몇몇 전력회사와 연구소에서만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첨단 장비이다.

LG산전은 현재 국내 업계에서는 최초로 청주에 자체 전력 시험소를 건설중이며, 이러한 중전기 분야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인정받아 이번 개발업체로 선정되게 되었다.

특히 LG산전은 고창 시험장의 중앙 통제소에서 본 장치의 작업 상태를 유선뿐 아니라 무선으로도 감시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를 장착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이 분야의 기술을 진일보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배전자동화 시험소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